또 고개드는 조폭 범죄…불안에 떠는 시민

광주·전남 범죄 다양·흉포화… 동네조폭도 끊임없이 발생
사업가 납치·살해 혐의 국제PJ파 부두목 자수 의사 밝혀

광주·전남지역에서 조폭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납치·폭행·협박·보험사기·미성년자 성매매·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 유형도 다양하다. 흉악한 범죄수법도 많아 지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수년 째 조폭범죄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조폭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검거한 조직폭력 사범은 광주 635명, 전남 410명 등 1045명에 이른다. 광주의 경우 2013년 174명에서 2014년 74명으로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2015년 155명, 2016년 142명, 2017명 178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경찰이 등록 관리중인 조직폭력배는 광주 327명(8개 조직), 전남 215명(8개) 등 총 16개 조직 542명이다. 경찰에 등록되지 않는 조폭까지 포함하면 광주·전남에서 활동중인 조폭은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경찰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서민을 괴롭히는 이른바 '동네 조폭' 관련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 지역민을 괴롭히고 있다.

무전취식이나 폭행 등을 일삼는 이른바 '동네조폭'은 현행법상 비교적 낮은 형량(6~12개월) 때문에 재범 확률이 높은 데다, 직업이 없거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겨울이 되면 오히려 교도소에 가기 위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광주광산경찰은 이날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음식점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모(36)씨와 양모(52)씨 등 이른바 동네조폭 2명을 각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도산동 일대, 양씨는 우산동 일대에서 각각 7회, 3회에 걸쳐 무전취식 및 영업방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식당 주인들이 밥값을 내라고 요구하면 거친 언행으로 위협하거나 가게 안에 소변까지 누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본 식당 주인 대부분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했다. 이들은 일정한 주거지나 일자리가 없으며 비슷한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씨는 지난 4월 중순 출소한 뒤 영세 상인을 상습적으로 괴롭혔다고 한다.

한 상인은 "경기침체로 장사가 안돼 월세도 제대로 못내고 있는데, 이들에게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나니 미칠 것 같다"면서 "이들이 출소 후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 두렵다. 장사를 접을까 고민 중"이라며 울먹였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호남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국제PJ파의 부두목 조모(60)씨가 공범 2명과 함께 50대 사업자를 납치·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A(56·부동산업)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경기도 양주시청 인근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양주경찰의 추격을 받고 있는 부두목 조씨는 지난 24일 가족을 통해 광주서부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자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 억울한 나의 입장도 들어달라. 자수하면 처음 수사에 나섰던 광주 서부서에서 조사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들은 협박·갈취를 통해 조직을 운영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조씨처럼 부동산업자 등과 연계하거나 노출이 적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불법 오락실, 보도방, 불법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폭력조직의 규모나 인원은 줄었지만, 범행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어 검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아파트 당첨 왜 안 되나 했더니…

분양사업자·부동산업자 공모해 113채 불법분양
허위 청약 후 고의 미분양 만들어 되팔아 돈 챙겨

아파트 청약열기가 뜨겁던 2015년 광주의 한 아파트 분양사업자와 부동산업자들이 모여 고의로 미분양 물량을 만들어 낸 뒤 이를 팔아 돈을 챙기기로 공모한다.

이들은 청약통장 보유자를 모집해 허위로 청약 가점을 높게 입력하도록 한 뒤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하게 하는 수법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만들어 냈다.

청약통장 보유자였던 A(39)씨 등 70여명은 같은 해 7월 부동산업자 등의 부탁을 받고 해당 아파트에 청약신청한 뒤 가점을 허위로 입력했다.

A씨 등은 실제 가점이 20~50점대인데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부풀려 70점대로 속였다.

A씨 등은 이 같은 꼼수로 청약에 당첨되자, 곧바로 계약을 포기하는 수법으로 100채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를 만들었다.

분양사업자들은 당첨이나 분양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가 생기면 예비 입주자에게 공개하고 입주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데도, 해당 물량을 추첨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부동산업자들이 미분양 물량을 특정인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고, 범죄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분양사업자들은 해당 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분양업자들 사이에선 이런 행위를 속 빈 대나무 같은 실효성 없는 청약통장이라는 의미로 '죽통 작업'이라고 부른다는 게 수사당국의 설명이다.

신축 아파트 분양 때 고의로 미분양 물량을 만드는 일명 '죽통 작업'에 가담한 청약통장 보유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 단독(부장판사 류종명)은 28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 등 허위청약신청자 3명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을 공모한 분양대행사 관계자 5명과 공인중개사 6명은 광주 지역 아파트 113채를 불법 분양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허위 청약 신청자도 A씨 등 70명에 이른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수입산 미꾸라지 국내산 속여
광주세관, 판매업체 9곳 적발

광주본부세관은 "수입산 미꾸라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광주권역 양만업자,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전남도 민생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수입산 미꾸라지 원산지 둔갑 행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는 업체 5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업체 4곳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들 업체가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시한 물량은 99여t(9억원)에 달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흥 마트건물 화재 28일 새벽 4시45분께 고흥군 고흥읍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 이 불은 마트 내부 1496㎡와 진열 상품 등을 태워 6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후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선금 받고 '먹튀' 40대 구속

목포해경은 28일 뱃일을 하겠다며 영세 선주들에게 접근해 임금을 미리 받고 잠적한 문모(43세)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영광군 선적 근해자망어선 K호(17t)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6개월치 임금 1500만원을 미리 선금(선용금)으로 받고 잠적한 혐의다. 문씨는 가로챈 선용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했으며, 생활비 마련과 도피를 위해 지난해부터 승선원 명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특정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

순천경찰, 30대 긴급체포

순천경찰은 28일 "평소 절친하게 지내온 동네 선배와의 결혼을 앞둔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A(36)씨를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강간죄로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보호 관찰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해룡면 한 아파트에서 B(여·43)씨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다.

숨진 B씨는 이날 오후 4시께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가족들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A씨가 아파트 화단에서 B씨를 승강기에 태워 6층 집으로 옮기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지인인 B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 했으며, 저항하는 B씨와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살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목포 금은방 여주인 살해 30대 징역 30년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금은방을 털려다가 여주인을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남)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5시 40분께 목포시의 한 금은방에서 여주인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금은방에서 반지를 껴보다가 갑자기 범행했으며, 비명을 들은 인근 상점 관계자가 들어오자 곧장 달아났다.

재판부는 "최씨가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4~5개월 전부터 금은방을 답사하고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범행 동기나 경위, 방법에 있어서 참작할 여지가 없다"며 "유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어리숙한 절도범…인형뽑기방 상습털이 곳곳 지문 남겨 '덜미'

쌍나팔

○…인형뽑기방을 전문적으로 털어온 30대 절도범이 범행 현장 곳곳에 남긴 지문 때문에 결국 철창행.

○…2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된 안모(35)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4시55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인형뽑기방에서 지폐교환기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부수고 현금 200만원을 훔치는 등 올해 2월부터 지난 15일까지 광주지역 인형뽑기방 12곳에서 총 67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쳤다는 것.

○…경찰은 "안씨가 인형뽑기방이 무인으로 24시간 운영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현장에 지문을 남기는 등 어리숙한 범행 수법으로 덜미가 잡혔다"고 설명.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